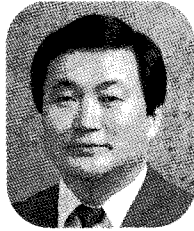


2000년 질병·위생분야 결산과 전망



최 홍 렬 사무국장

(사)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인 2000년 전 세계가 온통 요란하게 새해를 맞은지 어느새 일년이 되었다. 우리 축산업계, 특히 양돈업계는 올해 처럼 힘들게 보낸 해도 처음이라고 본다.

돼지 콜레라 청정화와 돈육수출 확대라는 양돈업계의 일관된 목표가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정지상태가 되었고, 구제역 발생직후의 암울한 혼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가의 절규,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에 안간힘을 쏟으며 한 해가 지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해 9월말까지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우리도 백신접종 중지라는 새로운 단계의 근절절대책을 목표로 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본에서는 시군방역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방역지원, 홍보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

면 금파리의 젖소농가에 수포성 질병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발표이후 신문, 방송 등에서는 매 시간, 거의 한달 이상을 온통 구제역에 관한 보도로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지경이었다.

책에서만 배워왔던 구제역이 결국 국내에서도 66년만에 발생되었고, 돈육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돼지콜레라 근절에 매달리던 양돈업계와 비대본은 안타까움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비대본에서는 당혹스런 사태를 맞았으나 즉각 방역요원의 농가별 채혈업무를 유보시킨 후 구제역 긴급방역지원 활동으로 전환하고, 방역요원과 지원인력 26명을 파주에 급파하여 구제역 긴급예방접종을 지원하였고 예방약 운송지원, 주사기와 소독약 등 방역기자재를 발생지역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구제역과 같은 긴급방역은 정부방역기관이 모든 분야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지원과 예산집행과정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민간방역조직이 앞장서야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이번 증명해 주었다고 본다.

작년부터 금년 11월 20일 현재까지 모금된 방역기금 19억9천만원의 집행원칙은 기부해 주신 많은분들의 소중한 뜻을 살리고자 "1원도 아끼자"라는 운영목표를 정하여 투명하게 집행해 왔다. 구제역 발생 이후에는 기부금 모금이 격감되어 지난 7~8월중에는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나, 8월말부터 방역본부 운영비, 인건

비, 사업비 등으로 농림부에서 촉발기금 1,254 백만원을 추가 지원 받았기에 이제는 운영에 어려움 없으며, 현재 8개 도본부, 122개 시군방역단과 방역요원 128명을 배치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비대본이 방역본부로 전환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소독, 홍보활동과 돼지 콜레라·돼지 오제스키병 조기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닭 뉴캐슬병과 가금인플루엔자 피해 예방활동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돼지콜레라는 작년 7월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6개월동안 비 발생이고 10월 현재 항체양성율이 96~97%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2001년 2월말까지 예방접종 100% 실시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3월 1일부터는 우리도 예방접종 중단을 목표로 청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최근 돼지 값 하락으로 감염농장의 돼지가 각 지역으로 판매되는 딸이돼지를 통해 발생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농림부 계획에 의해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경기도 7개 시군(용인, 여주, 이천, 안성, 평택, 화성, 포천), 강원 철원, 충북도 3개시군(충주, 진천, 괴산), 충남 3개시군(홍성, 당진, 논산)등 오제스키병 발생지역 또는 의심지역의 전 농가에 대한 모돈·웅돈 채혈을 실시하여 감염이환돈, 항체검사 결과 양성축은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도록하고 도태장려금 모돈 두당 15만원씩을 지급키로 하여 조기에 도태토록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방역본부에서는 채혈을 주관하여 전국 방역요원과 채혈 보조인력을 동원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

다.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방역기관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와 관련업계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축농가의 방역책임에 대한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만약 우리가 구제역 근절에 실패하여 구제역 발생지역이란 오명을 씻지 못하고 돼지콜레라의 박멸도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발생국가로 부더의 돈육수입을 막을 방패막이 없어지게 된다.

중국의 값싼 돼지고기와 연변의 한우고기의 수입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으며, 태국 등 동남아 등지의 돼지고기 수입은 가격으로 경쟁이 가능하겠는가를 직시해야겠다.

그러기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두가지 전염병을 조속히 근절하여 청정화 해야만 국내 축산의 살 길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내 농장을 내가 먼저 책임을 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겠고, 이웃 인근농장도 함께 소독과 차단방역에 동참하도록 촉구해야만 한다.

하루 속히 구제역 비발생 국가로 인정받고 돼지콜레라도 청정화하여 안정적으로 국내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은 차분하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난 9월 26일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인증받았기에,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방역관련기관, 단체와 전체 양돈업계와 양축농가가 힘을 모아야겠으며, 다 함께 참여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양돈**